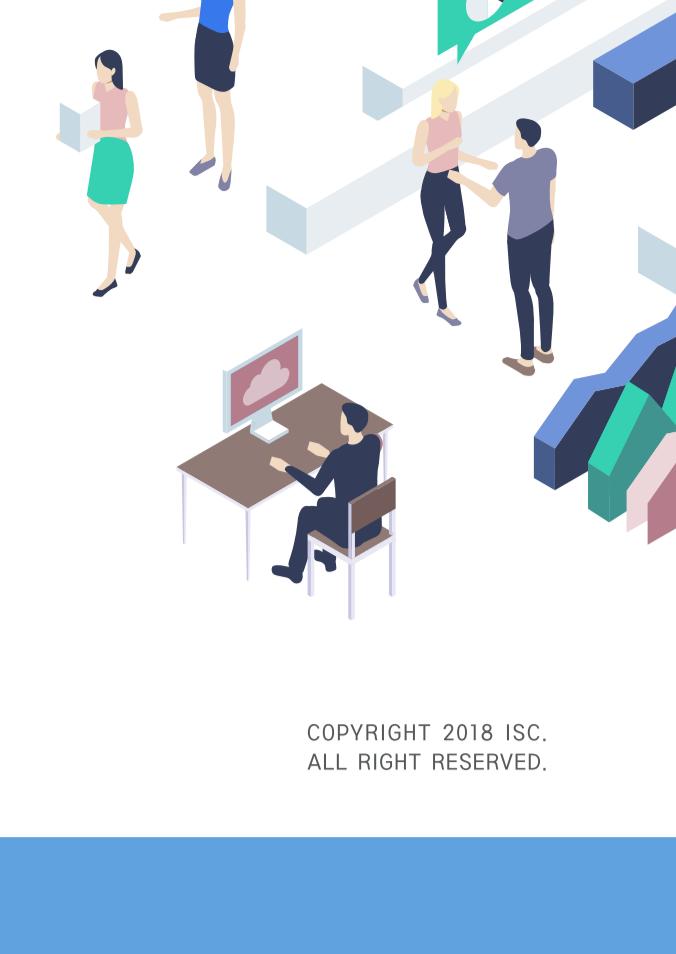


월간ISC 웹진

June 29,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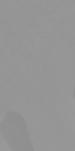
사 | 람 | 과 | 일

COPYRIGHT 2018 ISC.
ALL RIGHT RESERVED.

ISC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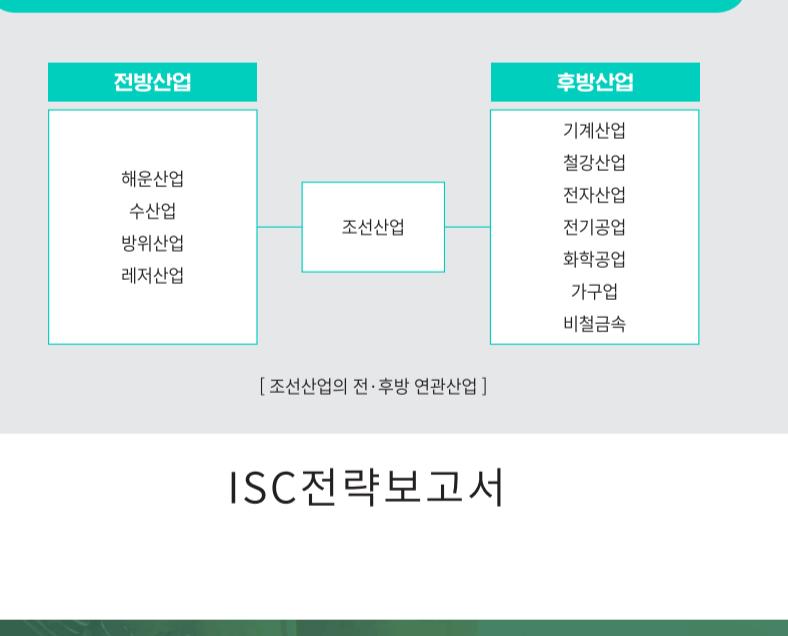
노동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산업별 ISC ISSUE

about I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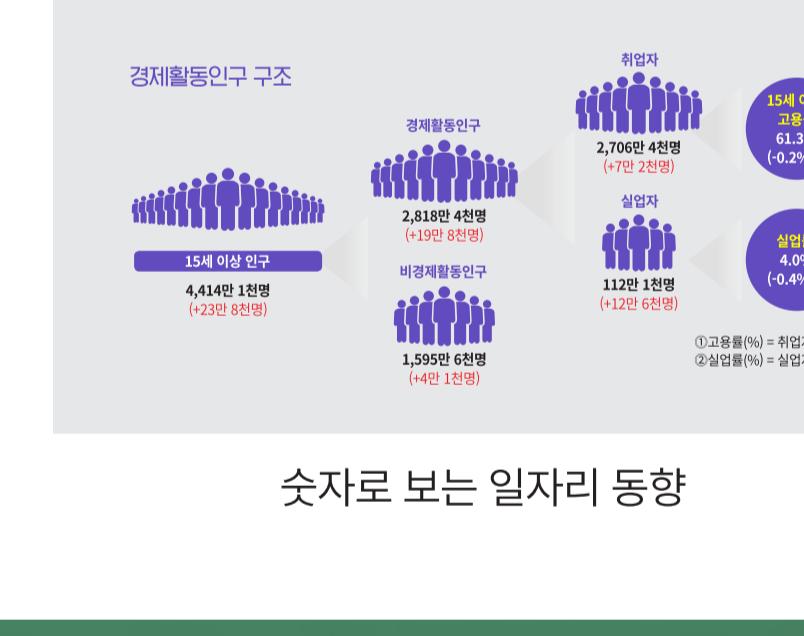
 호주(ISC)
Industry Sector Council


해외의 ISC 둘러보기

이달의 ISC



뿌리ISC를 소개합니다



뿌리ISC 정명환 사무총장

ISC 콘텐츠 리뷰

2018년 조선·해양산업 분야 인력현황 보고서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방산업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조선산업

후방산업
기계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기구업
비철금속

[조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숫자로 보는 일자리 동향

경제활동인구 구조

15세 이상 인구
4,414만 128명
(+21만 8천명)취업자
2,705만 4천명
(+7만 2천명)실업자
112만 124명
(+12만 6천명)실업률
4.0%
(-0.4%p)(1)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2)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ISC전략보고서

숫자로 보는 일자리 동향

길 위에 서다



아름해서 더 아름다운 섬, 울릉도

ISC 웹진

정기구독 신청하세요.

E-mail 뉴스레터 신청



PDF 다운로드

ISC 웹진도 오래도록 소장할 수 있어요.

PDF 다운로드 받기



ISC 웹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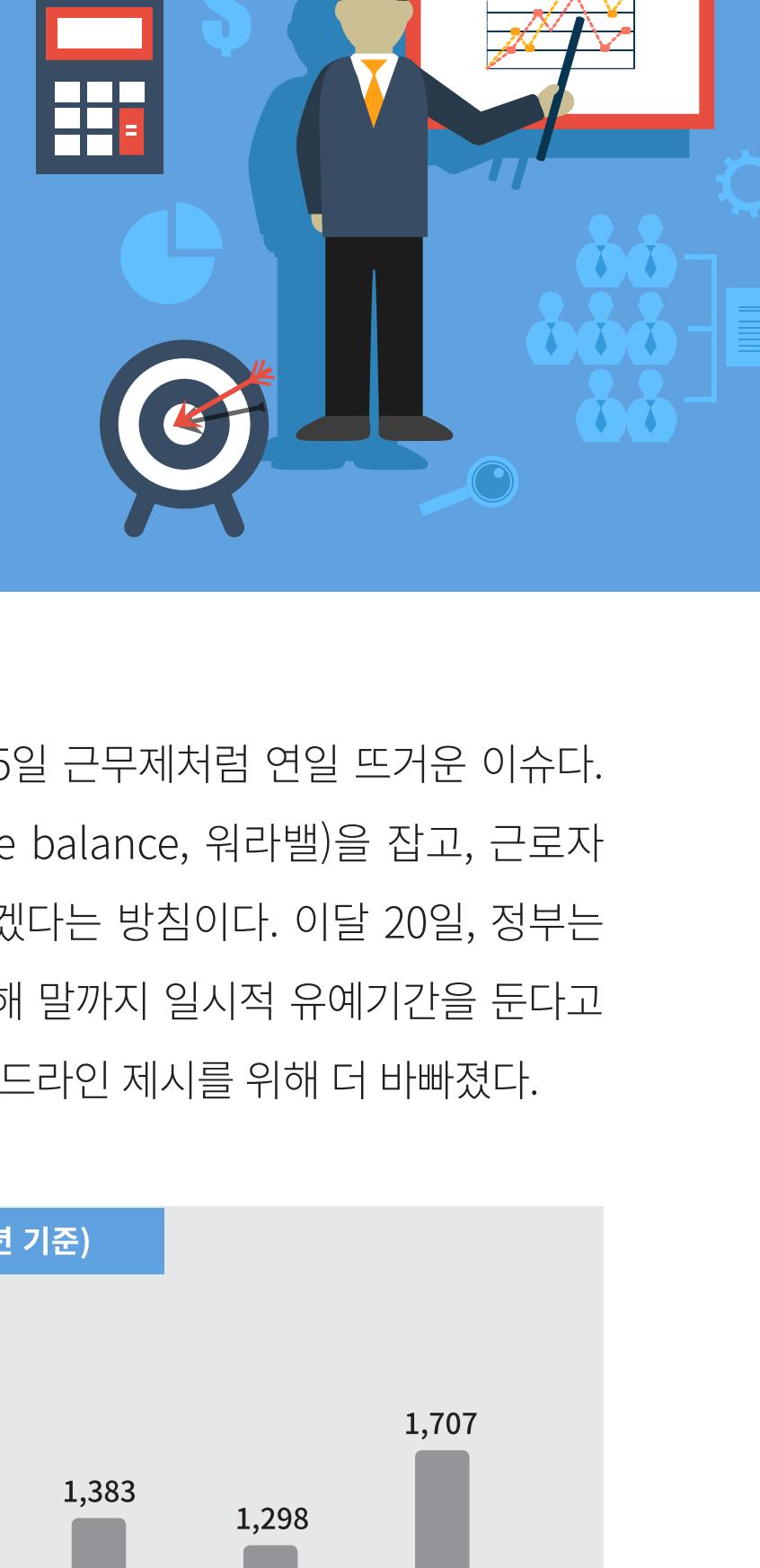
ISC 웹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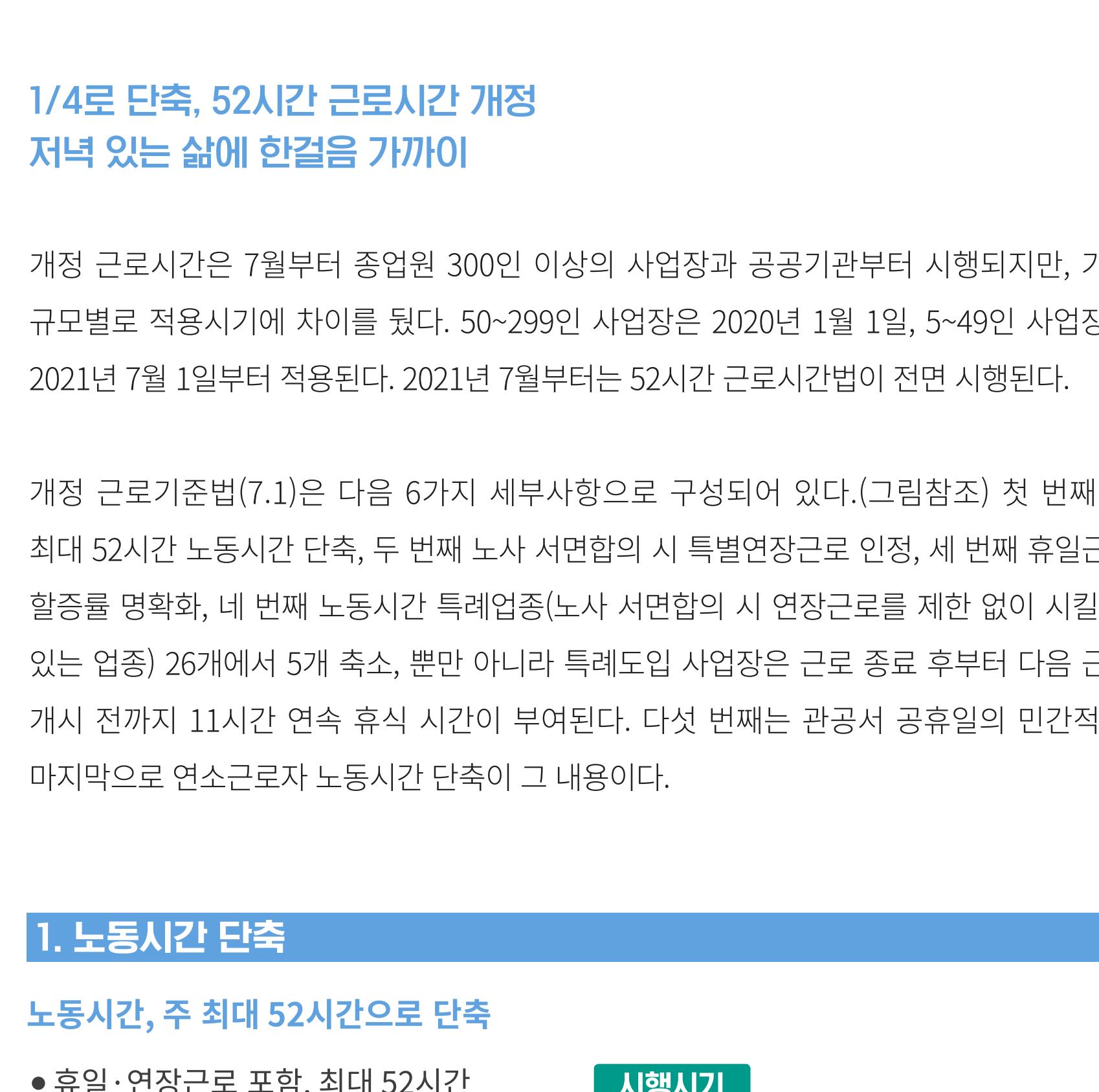
웹진 탄생스토리

웹진의 구성

노동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산업별 ISC ISSUE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2004년에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처럼 연일 뜨거운 이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위라밸)을 잡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20일, 정부는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 체별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일시적 유예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각 산업계는 한 숨 돌리기 바쁘게,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더 바빠졌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효과는 여러 보고를 통해 알려져 있다.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17년, 예산정책처)하고,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이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연구원('17년)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인원이 최대 13만 7천명~17만 8천명 예상된다.

1/4로 단축, 52시간 근로시간 개정 저녁 있는 삶에 한걸음 가까이

개정 근로시간은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뒀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7월부터는 52시간 근로시간법이 전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7.1)은 다음 6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참조) 첫 번째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두 번째 노사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인정, 세 번째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네 번째 노동시간 특례업종(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26개에서 5개 축소, 뿐만 아니라 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이 부여된다. 다섯 번째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마지막으로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이 그 내용이다.

1.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주 52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시행시기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18.7.1.

- 21개 특례제외업종 '19.7.1.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노사 서면합의 시)

인정기간

'21.7.1. ~ '22.12.31.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시행시기

'18.3.20.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26개 → **5개**

시행시기

'18.7.1.(주 최대 68시간 적용)

* 주 최대 52시간은 '19.7.1.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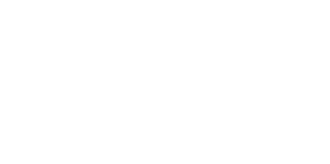
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시행시기

'18.9.1.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1.

30~300인 미만 '21.1.1.

5~30인 미만 '22.1.1.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 1주 노동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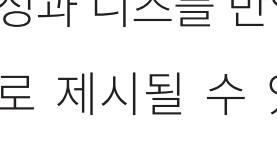
40 시간 → **35 시간**

-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

6 시간 → **5 시간**

시행시기

'18.7.1.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시행, 연말까지 유예기간 맞춤형 '근로시간' 필요, 산업별 인자위 '현장이 답'

근로기준법 개정이 각 산업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에 따르면,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ICT서비스·SW업, 콘텐츠방송산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은 업종별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 산업계 특성별로 근로시간 총량을 한시적으로 증가시키고 유연근무제를 해야 할 분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철강·정유·화학분야의 대정비·보수작업은 24시간 작업이 중단되면 안 되고, 전문 고급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초과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인 주 52시간이 넘어가면 불법이 된다.

선박 시운전(조선업)은 주52시간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야다. 건조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는 시운전은 특수 전문가들이 최대 3주에 걸쳐 실시한다. 군함·잠수함 등의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 걸린다. 검증의 지속성을 위해 해상에서 장기간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교체도 불가능하고, 3교대로 전환할 전문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건설업), 방송·영화 제작업도 연장근로, 탄력근로 등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 급여의 상당부분이 초과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수당인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산업계나,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무 부서, 시간 외 근무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운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증권사, 보험사 등)도 마찬가지다. 주 68시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이, 개정안으로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가 필수다.

계절을 타는 생산직에서도 특정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노조합의시 특정기간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빙과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여름에 연 생산량 50%가 판매되기 때문에 2조 2교대를 3조 2교대 등으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였다.

특히 업종 특성상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는 24시간 365일 근무할 수밖에 없는 보안관제, 고객 응대 콜센터 등 야간·비상근무가 불가피하다. 얼마 전 정부에 전달한 공동건의서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발주자 요구가 집중되는 업무특성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 기업, 노동계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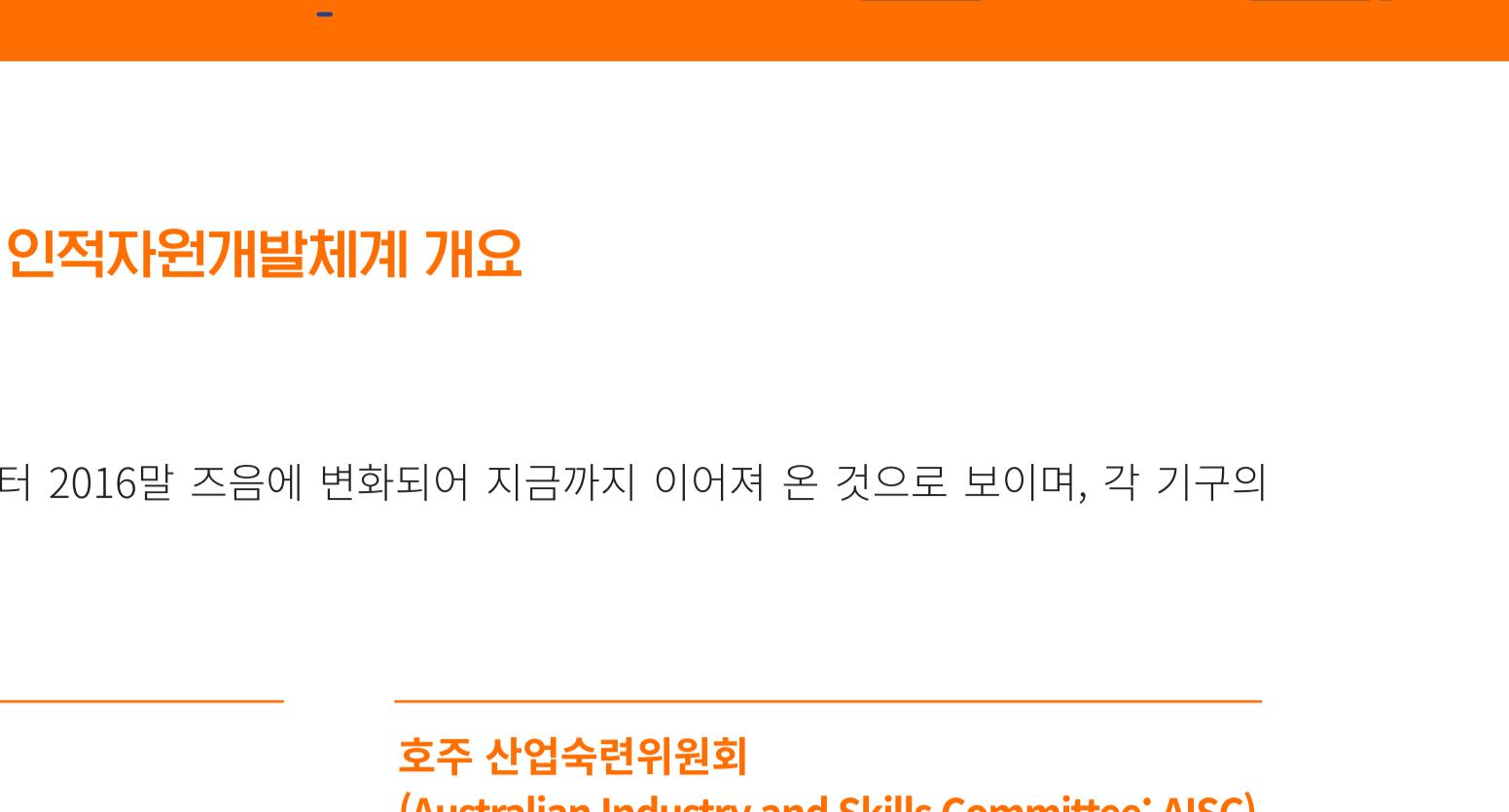
특히 제조업 산업의 핵심분야인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을 ‘근로시간 단축관련 현황조사’로 선정해 뿌리산업계의 환경과 상황에 다각도로 접근,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등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개정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선,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시간 저축제도, 자율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개념 자체의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산업별 노동과정과 업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우선이다.

탈정형화된 인력 양성으로 취업 미スマ치를 최소화하는 산업별 ISC와,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해답은 ‘현장 중심’에 있다. 각 산업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 규정에, 산업별 ISC의 과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호주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Australia



1. 호주의 산업 수요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개요

1) 호주의 거버넌스 체계

호주의 거버넌스는 2015년부터 2016년에 변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각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호주정부 산업숙련위원회 (COAG ISC; CISC)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산업과 숙련(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기구이며, 호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호주 산업숙련위원회 (Australian Industry and Skills Committee: AISC)

산업계 인사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감독 및 훈련패키지 승인의 역할 수행

숙련서비스기구 (Skills Service Organization: SSO)

IRC의 훈련패키지 개발 및 검증 과정 지원을 주로 담당하며, 호주 정부의 지원과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

산업자문위원회 (Industry Reference Committees: IRC)

AISC에 국가 훈련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훈련패키지 개발을 위해 기초가 되는 산업부문의 숙련수요를 파악하여 전달하는 역할 수행



출처: 최지희 외(2017). 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p.17.

2) 호주의 산업별 대표기구 변화

호주는 1996년부터 훈련 패키지를 도입하였고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서 산업별훈련자문위원회(Industry Training Advisory Board: ITAB)를 도입했다. 후 2004년부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Industry Skills Councils: ISC)가 훈련패키지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ISC는 호주 정부의 승인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으로, 산업현장이 반영된 자격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조사 실시, 훈련 패키지 수요 파악, 자격 종목 신설 및 변경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난 2016년부터는 기존 ISC가 SSO로 통합 또는 폐지되었고, 1개의 SSO가 여러 IRC에 연결되어 있어 IRC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SSO는 IRC에서 담당하는 훈련 패키지 개발, 프로젝트 관리, 정보 관리,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지원 등을 수행하고 훈련 패키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IRC는 훈련 패키지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며, 해당 산업 부문의 산업 동향 및 미래 산업수요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호주의 ISC 관련 연수기관

1) 호주 산업숙련위원회(Australian Industry and Skills Committee; AISC)

AISC 위원들은 총 11명으로 의장, 중앙정부대표, 산업계대표 각 1명과 주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숙련서비스기구(Skills Service Organization: SSO)와 산업자문위원회(Industry Reference Committees: IRC)

SSO는 현재 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SSO별로 몇몇 IRC를 지원하고 있다. IRC는 해당 산업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의 상황에 따라 구성은 다를 수 있음. 또한 IRC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원 승인은 AISC가 담당한다.

SSO-IRC 구성

- Artibus Innovation 건설 및 부동산 www.artibus.com.au

- 건설, 배관 및 서비스(Construction Plumbing and Services)
- 부동산(Property Services)

- PwC's Skills for Australia 자동차 부문, 문화, 교육, 금융 등 사업서비스 분야, 광업 및 토목 분야 www.skillsforaustralia.com

- 자동차 관련 산업(Automotive Allied Industry)
- 경차(Automotive Light Vehicle)
- 중형차량(Automotive Heavy Vehicle)
- 자동차 차체 수리(Automotive Vehicle BodyRepair)
- 자동차 전략 산업(Automotive Strategic Industry)
-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s)
- 토목 건설-인프라(Civil Construction -Infrastructure)
- 채탄/탄광업(Coal Mining)
- 문화 관련 산업(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 채굴(Drilling)
- 교육(Education)
- 채광(Extractive)
-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금속광업 채광(Metalliferous)
- 인쇄 및 그래픽 아트(Printing and Graphic Arts)
- 인쇄 및 그래픽 아트(Printing and Graphic Arts)

- Australian Industry Standards 전기, 가스, 수자원 등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철도, 운송, 공공서비스 분야 www.australianindustrystandards.org.au

- 항공(Aviation)
- 교도소/교정(Corrections)
- 전력 공급 및 산업 발전(Electricity Supply Industry Generation)
- 전기 공급 산업 전송배전 및 철도(Electricity Supply Industry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Rail)
- 전기 기술(Electrotechnology)
- 가스(Gas)
- 해양(Maritime) - 해양
- 공공 안전 및 치안(Public Safety)
- 철도(Rail)
- 운송 및 물류(Transport and Logistics)
- 수자원 관리(Water)

- Skills Impact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생명과학 www.skillsimpact.com.au

- 농업 및 원예학(Agriculture and Production Horticulture)
- 편의 시설 원예, 조경 및 보전 및 토지 관리 (Amenity Horticulture, Landscaping and Conservation & Land Management)
- 동물 보호 및 관리(Animal Care and Management)
- 양식 및 야생잡기(Aquaculture and Wild Catch)
- 식품, 음료 및 제약(Food, Beverage and Pharmaceutical)
- 산림경영 및 수확(Forest Management and Harvesting)
- 육류 및 가공(Meat)
- 의약품 제조(Pharmaceutical Manufacturing)
- 펄프 및 제지(Pulp and Paper Manufacturing)

- Skills Impact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생명과학 www.skillsimpact.com.au

- 경마(Racing)
- 목재 및 목재 가공(imber and Wood Processing)
- 목재 건축 솔루션(Timber Building Solutions)

- IBSA Manufacturing 제조업 분야 ibsa.org.au/manufacturing-sso

- 항공 우주(Aerospace)
- 가구(Furnishing)
- 제조 및 엔지니어링(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 공정제조,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lab(실험실)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 섬유, 의류 및 신발(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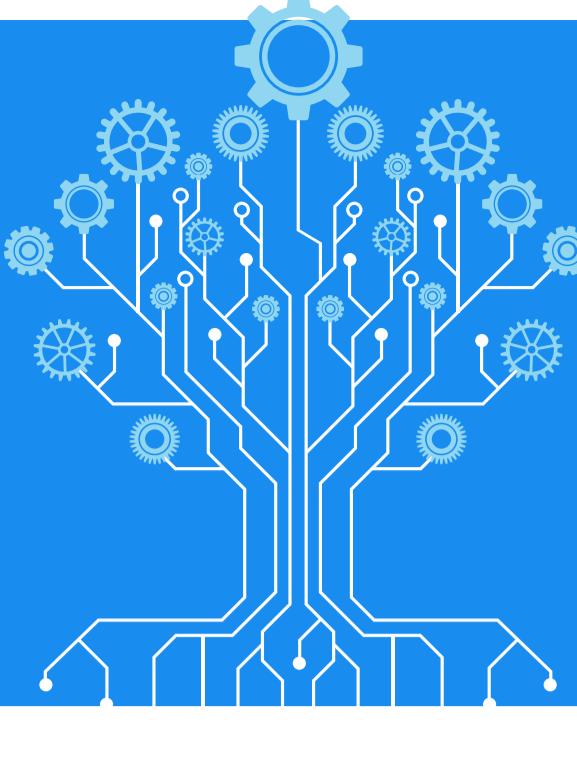
- Skills IQ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의료서비스, 보육, 커뮤니티 서비스 www.skillsiq.com.au

- 원주민/토레스해협 섬주민 의료보건 근로자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alth Worker)
- 구급차 및 구급대원(Ambulance and Paramedic)
- 어린이 교육 및 보육(Children's Education and Care)
- 지역사회 및 개발(Community Sector and Development)
- 대인 고객서비스 및 지원(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Health)
- 치의학(Dental)
- 고객 관리 및 지원(Direct Client Care and Support)
- 간호조무사(Enrolled Nursing)
- 응급처치학(First Aid)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 공공 부문(Public Sector)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Sport and Recreation)
- 기술 지원 서비스(Technicians Support Services)
- 관광, 여행 및 숙박업(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 도소매업(Wholesale, Retail)

출처: 최지희 외(2017). 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p.179-80.
(자료: <https://www.aisc.net.au/content/skills-service-organisations> 재구성/검색일자: 2018.02.25.)

뿌리ISC 취재

뿌리 없는 나무 없다 완제품의 품질경쟁력 결정, 6대 뿌리기술 모인 뿌리산업!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서 나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뿌리처럼,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을 의미한다. 단단한 뿌리는 튼튼한 나무를 키운다. 뿌리산업백서에 의하면, 뿌리기업은 2016년도 기준 총 25,787개사로(제조업의 6.2%), 매출은 약 133조원(제조업의 8.6%)이다. 업종별로는 금형과 표면처리가 각각 6천개사로 뿌리산업의 과반을 차지하고, 매출은 용접이 뿌리산업의 30% 이상으로 소성가공, 표면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주력산업의 핵심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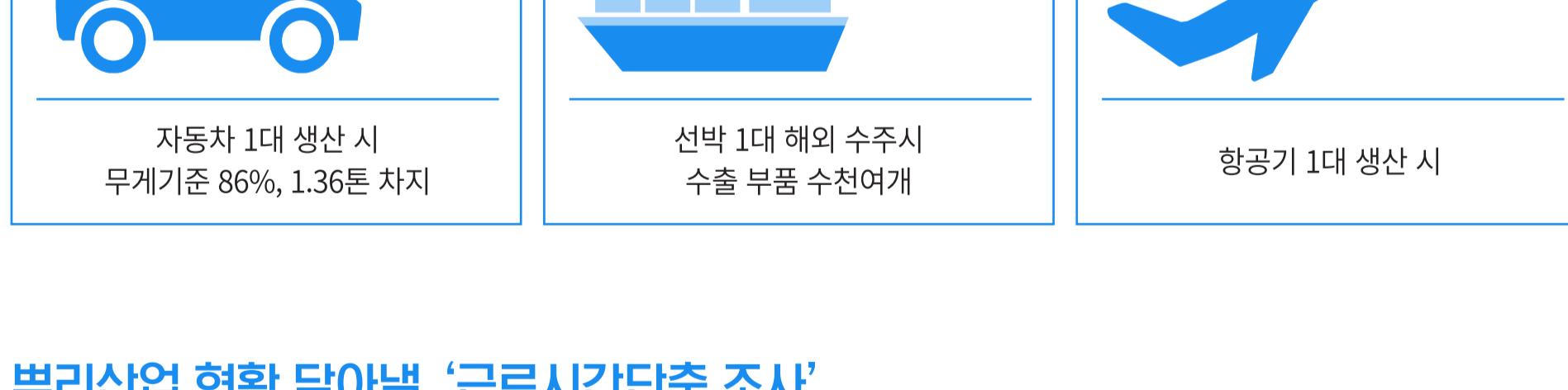


▶뿌리ISC 구성원 7인, 좌부터 지경란 전임, 정명환 사무총장, 임영택 위원장, 오성민 선임, 박희철 전문위원, 김민성 선임, 박주리 전임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6대 뿌리기술이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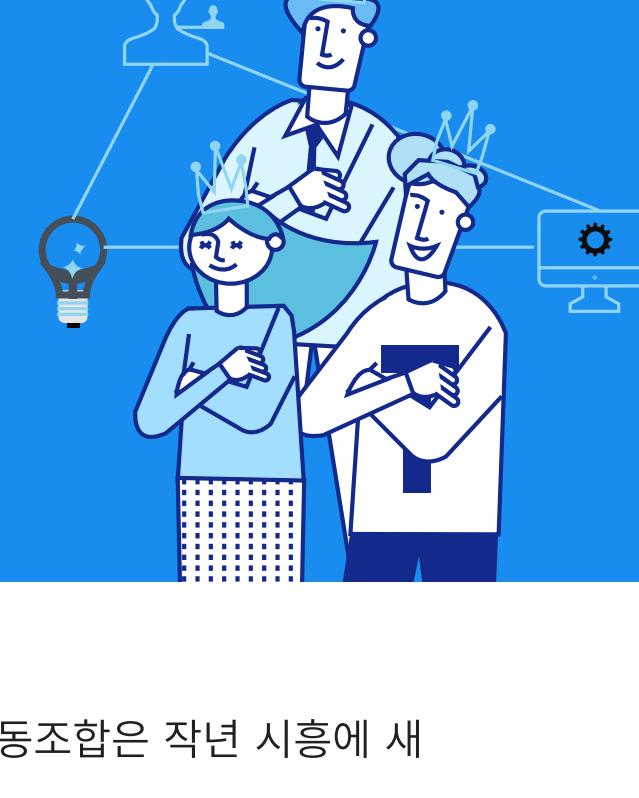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011년 7월 제정) 이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IT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을 담당하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자동차 1대 생산 시 뿌리기술의 관련 비중 기준으로, 전체 부품 중 90%(부품 수 약 22,500개)를 차지하고, 무게기준으로는 86%(약 1.36톤)을 차지하는 식이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1대를 해외 수주 시에 전체 용접비용 중 건조비용만 35%를 차지한다. (표 참조)



뿌리산업 현황 담아낼 '근로시간단축 조사' NCS 분류체계 개편연구 통한 공동협력

뿌리산업계는 산업계 특성상 NCS 대분류가 없다. 기계와 재료산업의 중분류, 세분류에 속해있다. 타산업계와 공동협의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올해 ISC 최초로 유관 산업별단체인 재료ISC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NCS 분류체계 개편연구도 산업계간 상생을 위해 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NCS 신설에 따른 금속가공 분류체계의 보완과 자격체계 신설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신호기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뿌리ISC는 이번 연도 자율기획사업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조사'를 통해 뿌리산업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참여기관 실무자와 추진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뿌리산업체 인사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재직자 40명 FGI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뿌리산업 인적자원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앞두고 있다.

뿌리ISC 인터뷰**뿌리ISC 현재와 미래, “토끼와 거북이처럼”****현장적합형 인재양성으로
실력중심사회 구현****뿌리ISC 정명환 사무총장**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뿌리ISC)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작년 시흥에 새 등지를 틀었다. 공단 밀집 지역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깝게 듣기 위한 의지다. 현재 조합원은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등 557개사이며, 50% 넘는 업체가 경기권에 모여 있다. 뿌리산업 중 핵심 분야인 금형이 뿌리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ISC 정명환 사무총장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뿌리ISC) 정명환 사무총장

Q 뿌리ISC 산업계만의 NCS 개편 특징이 있다면?

A 뿌리산업계는 NCS 대분류가 없고 중분류, 세분류 등으로 나뉜다. 2015년 발족당시 27개였던 NCS 분류체계는, 2016년 세분류에서 4부문 신규개발, 12부문 개선, 4부문 자격개편 등으로 2기 사업을 진행 중인 2018년 현재 27개 분류체계에서 31개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12개 부문의 개선을 통해 현장적합성을 높였으며, 타 인자위와 협업을 앞두고 4개 부문은 보류중이다. 중분류와 세분류 안에서 노동계 현장의 적합성과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NCS 개편 확대를 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은 현재진형이다.

Q 뿌리IS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은?

A A.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제품의 중간, 부품과 완제품 중간, 산업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제조 공정 산업이 바로 뿌리산업이다. 글로벌 제품 브랜드들도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업의 목표는 느릿하더라도 한발한발 꾸준하게, 현장액션은 빠릿빠릿한 토끼처럼. 뿌리ISC의 미션이다. 올해 자율기획사업으로 진행 중인 ‘근로시간단축 현황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뿌리산업계의 현황을 정리중이다. 뿌리산업체의 생동감 있는 현장 목소리들을 뿌리 ISC에서 취합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와 상황에 대비하여 노력하고 있다.

Q 현장적합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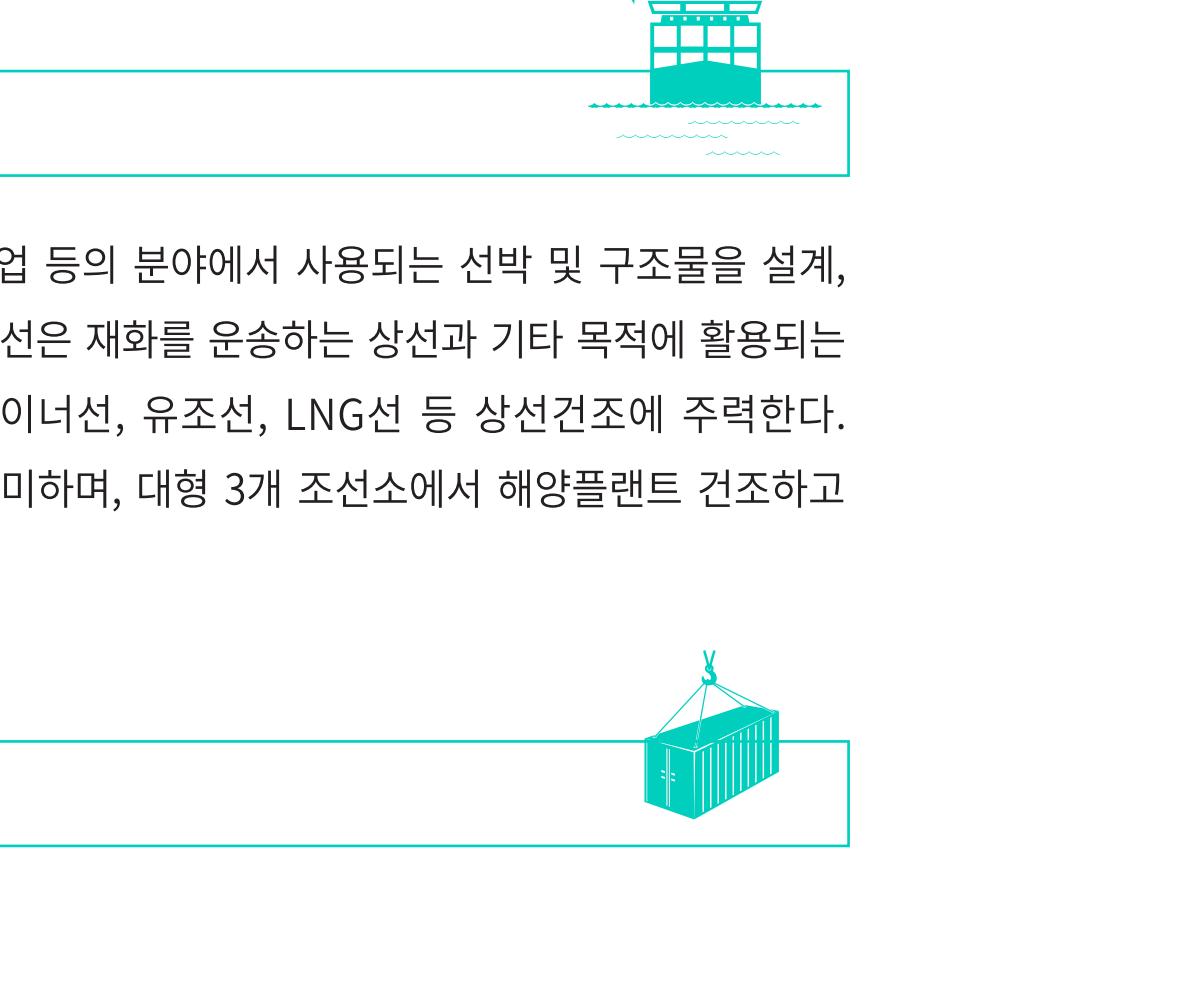
A A. 뿌리ISC 산업군은 신규 및 재직 인력의 기술기반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오래된 고민이다. 협동조합 이전,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을 건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흥으로 오면서 공단 네 곳의 현장 목소리를 가깝게 듣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창구가 필요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세계 생산 5위, 수출 2위다. 위상에 걸 맞는 실력중심 인재들을 양성,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입직자들은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취업자들은 역량레벨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문 인력들을 꾸준히 양성해야한다. 일학습병행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참여기업과 훈련과정개발 30개사, 컨설팅 연 15개사로 사업범위와 참여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Q 앞으로 뿌리ISC의 방향

A A. 단시간 내에 기술력 확보가 어려운 기술선도형 산업인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항공, 로봇, IT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경쟁력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뿌리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현황 및 전략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뿌리ISC는 연 3~4회 전국 전시회에 참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실체적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도 국제표면처리 산업전, 서울공작기계전시회 등에 참여, 뿌리산업의 현재와 미래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한가지, 뿌리산업분야 NCS를 추가 개발, 개선하여 교육기관, 산업체, 자격 적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 교육원에 뿌리분야 NCS 필수능력단위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뿌리산업계에 입문하는 특성화고 학생부터 기업 재직자까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이로써 뿌리ISC는 진정한 인력양성분야 거버넌스 역할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18년 조선·해양산업 분야 인력현황 보고서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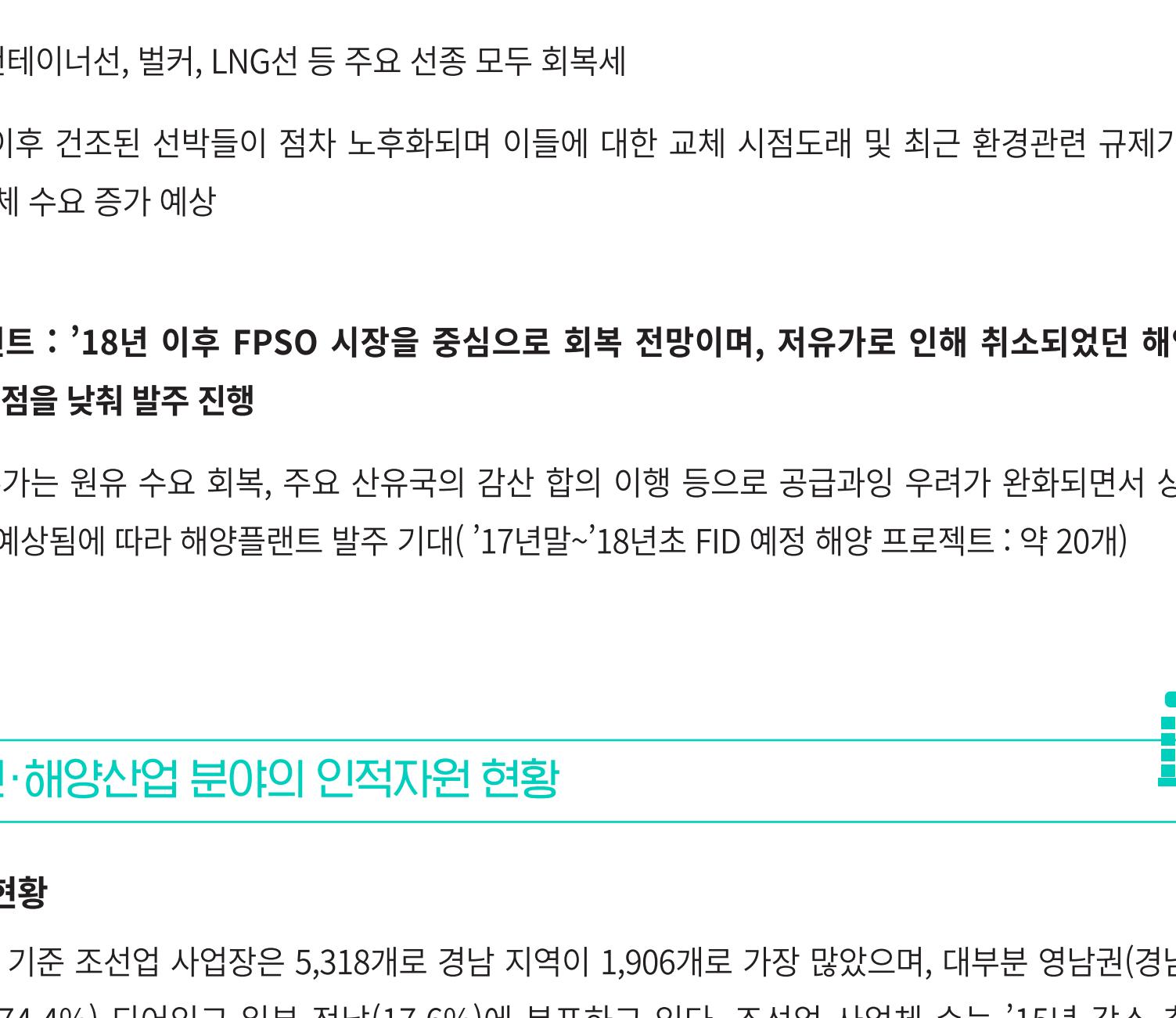
1. 조선·해양산업 분야 개요

조선·해양산업은 해운업, 해양개발 및 자원생산, 수산업, 군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박 및 구조물을 설계, 건조, 운반, 설치, 시운전, 운영·유지, 철거, 해체하는 산업이다. 조선은 재화를 운송하는 상선과 기타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선으로 분류되는데, 중대형조선소에서는 주로 벌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 상선건조에 주력한다. 해양플랜트는 해양자원개발에 활용되는 선박 및 구조물 등을 의미하며, 대형 3개 조선소에서 해양플랜트 건조하고 있다.

2. 조선·해양산업 분야 특성

1) 산업의 특성

조선·해양산업은 선대, Dock, Crane 등 대형설비가 필수적이므로 막대한 설비자금과 장기간의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운용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선박의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대형 구조물의 제작상 자동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속련)기능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노동/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종합조립산업의 특성 때문에 전방산업 뿐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매우 크다. 또, 선주의 발주로 선박을 건조하는 주문생산방식의 산업이며, 90% 상당이 수출선으로 높은 외화 획득 효과가 있다.



조선 산업은 항로, 적재화물 및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종이나 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산체제가 불가능하고 선주의 개별적인 발주에 의한 주문생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시점에서 건조,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선박의 가격이 대체로 고가이기 때문에 수출선 건조 시 수출기여도 및 외화 가득률이 높고, 세계 선박 시장이 단일시장(Global market)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단시간 내에 시장점유가 가능하다.

2) 대내외적 위상

조선·해양산업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17년 한국 총 수출금액(5,739억 달러) 중 선박 수출금액은 42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증가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1,418조 중 67조(4.7%) 차지했다. 취업유발계수도 12.0로 반도체(4.3), 석유제품(1.3) 보다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건조 능력 보유하고 있다. '09년까지는 한국이 세계 1위 선박 건조국이었으나, 이후 중국의 급성장으로 G2 체제이다.

3. 조선·해양산업 분야 시황

'17년은 국내 상당수 조선사들이 연초에 세운 수주 목표(계획)를 달성, 예상을 초월한 극심한 수주절벽 사태를 겪었던 '16년의 저점에서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텡커 신조 시장을 주도하며 상선 수주에 박차를 가하였고 해양플랜트에서도 일부 계약을 성사시키며 '17년 총 212억불 이상 수주를 달성했다.

조선분야 : 회복세 진입.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

-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 점진적 해소, 국제환경규제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간 평균발주량('96~'16년 3,780만CGT) 대비 적은 신조선 발주량. '18년 신조선 발주량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과거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텡커, 컨테이너선, 벌커, LNG선 등 주요 선종 모두 회복세

- '03년 이후 건조된 선박들이 점차 노후화되며 이들에 대한 교체 시점도래 및 최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교체 수요 증가 예상

해양플랜트 : '18년 이후 FPSO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 전망이며, 저유가로 인해 취소되었던 해양프로젝트들이 순익분기점을 낮춰 발주 전망

- 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행 등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플랜트 발주 기대('17년말~'18년초 FID 예정 해양 프로젝트 : 약 20개)

4.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인적자원 현황

1) 고용현황

'17년 기준 조선업 사업장은 5,318개로 경남 지역이 1,906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영남권(경남, 부산, 울산)에 밀집(74.4%) 되어있고 일부 전남(17.6%)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업 사업체 수는 '15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7년 조선업 종사자 수는 총 113,776명으로 경남 지역이 54,5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대형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울산에 80.1% 분포하고 있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15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감소세 지속되고 있는 반면 '18년 수주시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는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17년 조선업 종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0대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37,576명, 33.0%)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40대(34,974명, 30.7%), 50대(24,662명, 21.7%)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16년 대비 42,256명이 감소했으며,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1,000명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2) 채용현황

'17년 하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의 구인인원은 약 3,225천명이며, 채용계획인원은 87천명으로 인력부족률은 2.6%이다. '17년 하반기 기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구인인원은 약 158천명으로 제조업 24개 중분류 중 8번째로 많으며, 4.9% 비중 차지한다. 또, '17년 하반기 기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구인인원은 약 2천명으로 제조업 24개 중분류 중 15번째로 많으며, 1.9% 비중 차지한다.

'17년 하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의 구인인원은 약 3,225천명이며, 채용계획인원은 87천명으로 미충원인원은 29천명이며, 미충원율은 19.0%이다. '17년 하반기 기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각각 5,165명, 4,603명으로 미충원인원은 562명, 미충원율은 10.9%로 나타난다. '17년 하반기 기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미충원율은 10.9%로 제조업 평균 19.0%에 비해 8.1% 낮게 나타난다.

5.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인적자원 전망

1) 인력수요 전망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 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조선업 일자리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건조량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조선업 고용은 '18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 감소량은 '17년 하반기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년 상반기 일자리는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력공급 전망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79만)가 지속되며, 제조업도 취업자는 증가(22만)하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 경쟁심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업 구인·채용 현황

'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4,471명, 채용인원 4,731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4천 개다. 조선업 종사의 미충원율은 8.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2.9%p 낮은 수준이다.

5) 경기전망

조선·해양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되고 있다. 또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 보인다.

6. 인력양성 정책

1)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해양플랜트 사업관리 분야 NCS 개발

국내 조선사가 취약한 분야인 설계 검증, 수익성 평가, 위험관리, 공정 관리 등 분야별 PM 교육과정 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해양레저선박 및 기자재·장비 분야 인력 양성

해양레저분야 NCS(소분류)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정부(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여 해양 레저분야의 인적자원개발 표준 인프라 구축하고 중소조선연구원, 국내 유수의 해양레저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레저분야 NCS 개발한다.

3) 미래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인력 유출 방지

스마트쉽, 친환경선박(LNG 연료추진선 등, 선박·조선소 스마트 化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스마트쉽,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소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프로파일링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설·시범운영을 돋는다.

4)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해양플랜트 사업관리 분야 NCS 개발

국내 조선사가 취약한 분야인 설계 검증, 수익성 평가, 위험관리, 공정 관리 등 분야별 PM 교육과정 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해양레저선박 및 기자재·장비 분야 인력 양성

해양레저분야 NCS(소분류)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정부(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여 해양 레저분야의 인적자원개발 표준 인프라 구축하고 중소조선연구원, 국내 유수의 해양레저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레저분야 NCS 개발한다.

6) 미래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인력 유출 방지

스마트쉽, 친환경선박(LNG 연료추진선 등, 선박·조선소 스마트 化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스마트쉽,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소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프로파일링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설·시범운영을 돋는다.

2018 숫자로 보는 일자리 동향

: 일자리 지표 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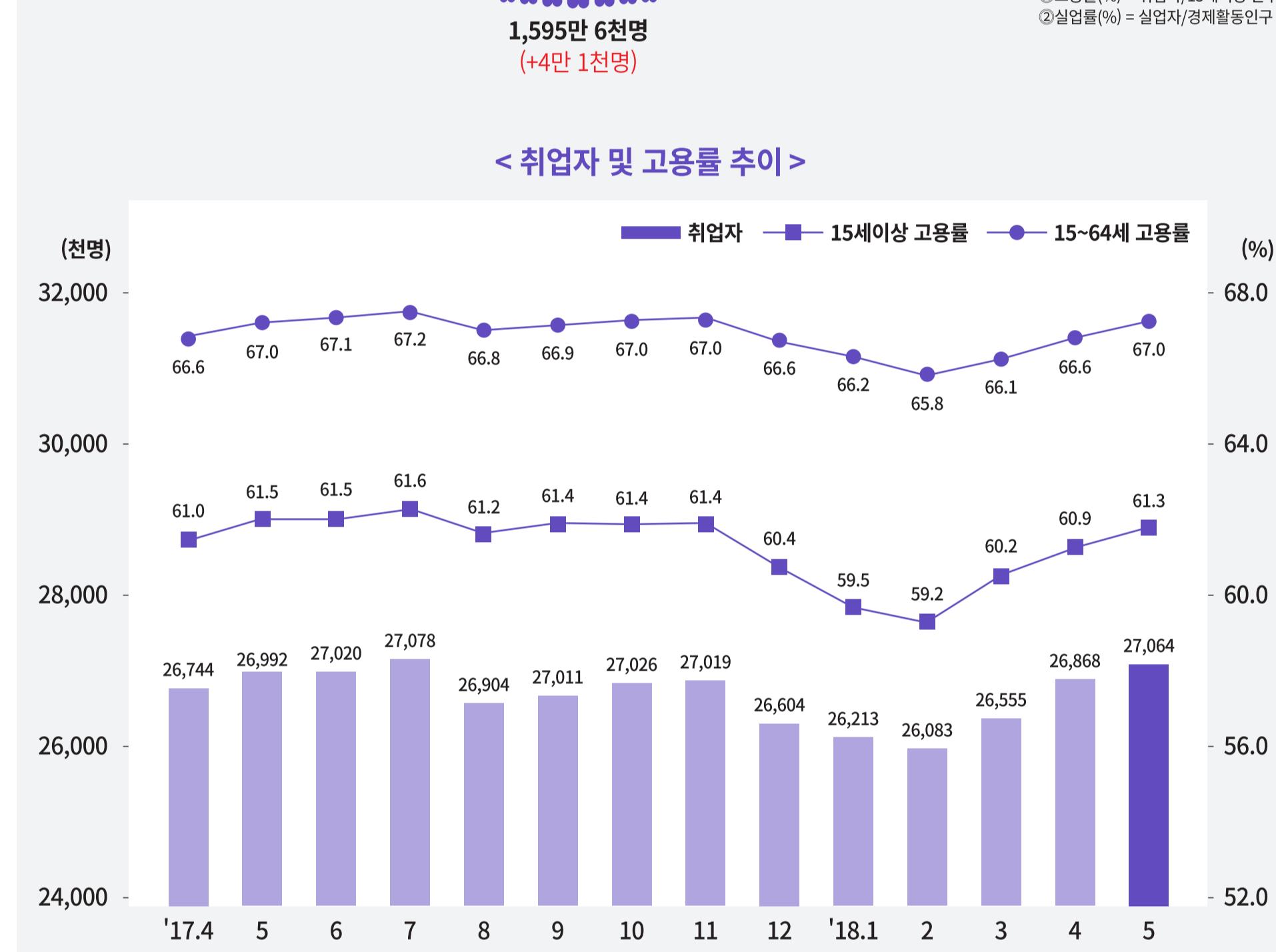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1886년 경찰의 유혈탄압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최초 시행되었다. 산업사회에서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노동자 기념일이 있는 5월의 일자리 동향을 숫자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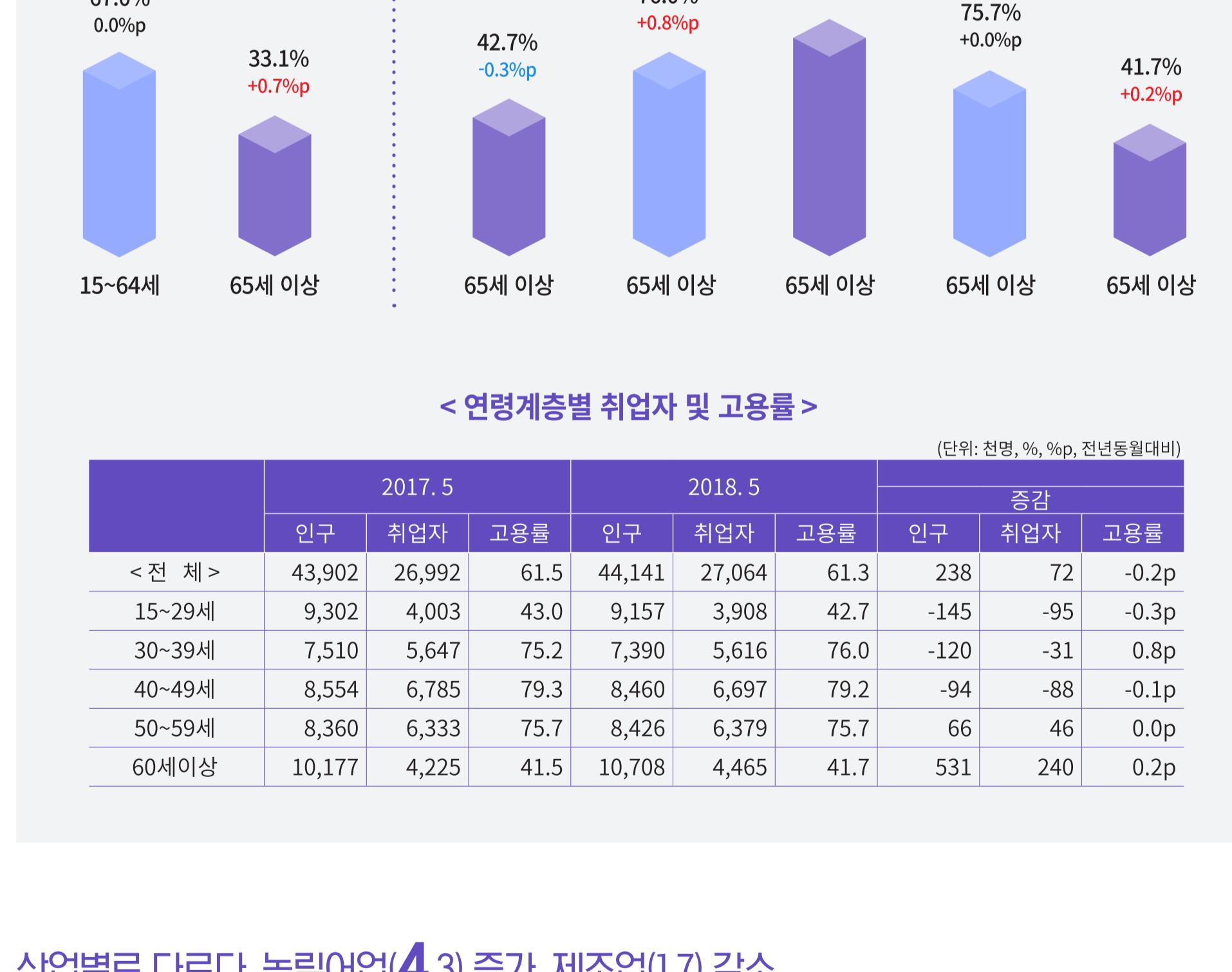
더 많이 취업했다, 7만 2천명 증가

2018년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명으로 7만 2천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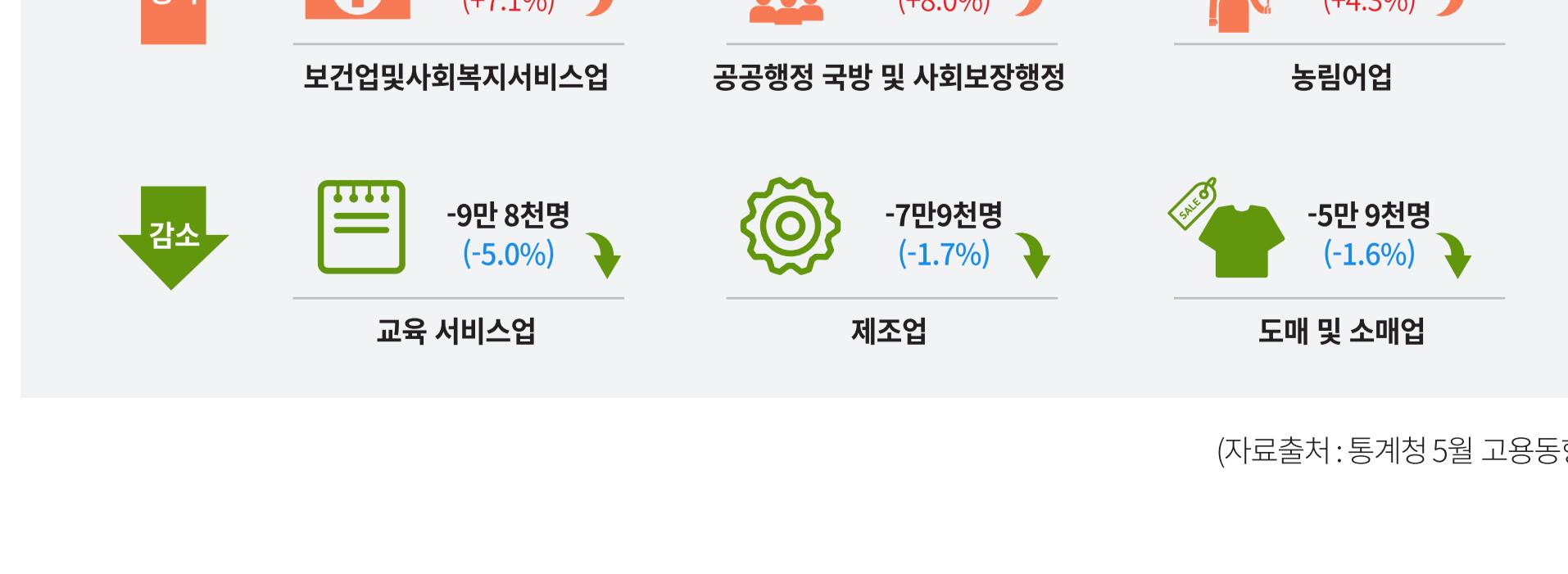
60세 이상은 취업자수 증가, 30대는 감소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이상에서 24만명, 50대에서 4만 6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8만 8천명, 15~19세에서 7만명, 30대에서 3만 1천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30대, 60세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40대 등에서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고용률은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다르다, 농림어업(4.3) 증가, 제조업(1.7) 감소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만 8천명, 7.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만 6천명, 8.0%), 농림어업(6만 2천명, 4.3%), 금융 및 보험업(6만명, 7.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9만 8천명, -5.0%), 제조업(-7만 9천명, -1.7%), 도매 및 소매업(-5만 9천명, -1.6%) 등에서 감소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증가는 농번기(4~10월)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애듯해서, 더 아름다운 섬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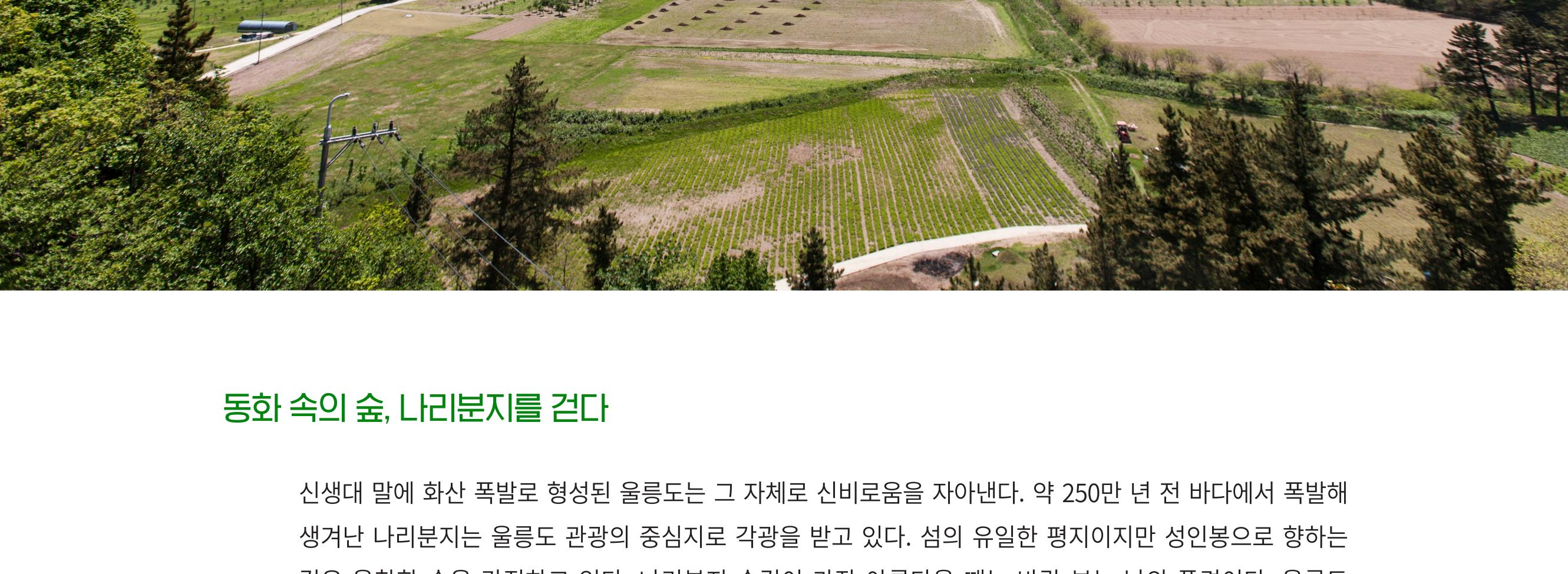
하늘이 허락한 날에만 닿을 수 있는 섬. 울릉도는 쉽게 갈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다. 포항에서 200km 넘게 떨어져 있고 뱃길로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 마음을 굳게 먹고 여행길에 올라도 파도가 높으면 그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한국인이라면 생에 한 번 쯤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오른다. 국토 동쪽 끝이라는 상징성 때문일까. 깎아지른 절벽과 거친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보물섬, 울릉도를 만난다.



바다, 아름다운 파도소리가 들려오네

울릉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발이 닿는 곳 도동항은 섬 여정의 출발점이다. 도동항에서 동쪽 해안을 곁에 두고 행남해안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보면 바다를 뚫고 솟아난 기암괴석을 만나게 된다. 한적한 산책로는 깎아지른 기암절벽 아래 옥빛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걷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파도가 넘실대는 해안 산책로의 또 다른 매력은 아름다운 파도소리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보면 파도에 옷 젓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 해식동굴과 골짜기를 연결하는 다리 사이로 펼쳐지는 해안은 그야말로 압권을 이룬다. 무언 갈 굳이 하지 않아도. 그저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순간들이다.



동화 속의 숲, 나리분지를 걷다

신생대 말에 화산 폭발로 형성된 울릉도는 그 자체로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약 250만 년 전 바다에서 폭발해 생겨난 나리분지는 울릉도 관광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섬의 유일한 평지이지만 성인봉으로 향하는 길은 울창한 숲을 간직하고 있다. 나리분지 숲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람 부는 날의 풍경이다. 울릉도 특유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하늘이 가려질 정도로 빽빽이 자란 나뭇가지가 일제히 춤을 추는데 바람에 따라 나부끼는 나무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특히 성인봉 나리분지에서 신령수까지 이르는 길은 전통가옥 투막집과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원시림 보호구역을 볼 수 있다. 초록빛을 지붕 삼아 숲속 터널을 걷다보면 봄의 전령사가 살 것만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오늘의 태양’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울릉도에 왔으니 일몰을 놓칠 순 없다. 내륙에서는 흔히 말하는 일몰·일출 명소를 찾아가야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울릉도는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명소’가 된다. 특히 해발 320m의 망향봉에 있는 독도전망대는 독도박물관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쉽게 오를 수 있다. 오른쪽엔 독도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전망대’가, 왼쪽엔 도동항과 시내를 볼 수 있는 ‘시가지 전망대’가 있다. 내수전 일출전망대는 저동항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유명하다. 남서일몰전망대와 더불어 울릉도에서 일몰로 유명한 곳은 우리나라 10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웅포해안의 일몰이다. 바다와 숲, 소소한 풍경 모두가 아름다움이 되는 곳. 울릉도는 닿을 수 없어서 더 애듯한 미지의 섬이다.